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LED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횡단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요즘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방지하고자 최근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안전사고 발생위험률이 높은 관내 3곳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글: 사진: 임중빈(고양시 소셜기자)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LED 바닥신호등

2019년 킨텍스에서 열렸던 '2019 경기도 교통안전(신기술) 박람회' 당시 선보였던 'LED 바닥보행신호등'이 우리 고양시에서 실제로 시범 설치되었다. 작년 9월에 관내 총 3개소(행신초등학교, 화정역 광장, 낙민초등학교)에 설치된 LED 바닥신호등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되거나 사업이 예정 중이다. 고양시는 바닥에 매립되는 방식의 LED 바닥신호등 외에도 노란신호등, 노란철주등을 설치하며 다양한 방식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도입·개선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등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스몸비족이나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나가고 있다. 시범설치로 시작해 이번에 완전한 모습으로 구현된 LED 바닥신호등은 '멈춤신호'에는 바닥이 빨간색으로 점등되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횡단이 가능한 '녹색불'에는 동일하게 녹색으로 점등되는 물론, 보행신호가 끝나가는 시간에는 점멸되어 보행자들의 횡단을 돕고 있다. 특히, 멈춤신호에서는 강렬한 붉은색 점등으로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스몸비족: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

심야시간 교통안전 효과 기대

시범적으로 설치된 3곳은 LED 바닥신호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야시간에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약자나 어린이, 스몸비족 등은 LED 바닥신호등을 인지하고 스스로 최대한 인도 쪽으로 이동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신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선과 구분되어 있고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승강장 또한 시범설치되어 있어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LED 바닥신호등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도 지켜주는 시설물이다. 운전자는 LED 바닥신호등을 통해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위치를 운전 중에도 바로 식별할 수 있으며, 차도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시범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구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 화정역광장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행인들
2. 화정역광장 횡단보도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3. 행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행인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눈에 띄는 '노란신호등'